

순천시, 2022 'K-웰니스 브랜드 대상' 수상



순천시가 7월27일 한국웰니스산업협회로부터 '2022 K-웰니스 브랜드대상'을 수상했다. 순천시는 지난 2월 전남 제1호 K-웰니스 도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힐링 명소 입증 “시민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 것”

시로 선정된데 이어, 이번 K-웰니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명소임을 입증했다. 시는 생태를 기반으로 도시를 가꾸었으며, 2013년 정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2023년 두 번째 정월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정월 속 여유와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민선8기 도시 비전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으로 정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캠퍼지 조성 등의 사업이 자연숲캠퍼지분야의 미래 발전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

졌다. 시상식은 7월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aT센터에서 열리는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행사에서 순천시 부스를 운영하면서 2023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를 함께 홍보한다. 김미자 협회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를 앞둔 순천시가 K-웰니스 브랜드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라며 “2023순천만국제정월박람회 성공개최와 함께 웰니스 도시로서 순천시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군, 어린이음악극 '거인 양갈로' 공연 성료

고흥군은 지난 7월27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어린이 춤추는 음악극 '거인 양갈로' 공연을 선보여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거인양갈로 공연은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가 주최·주관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된 작품으로 필리핀 북쪽 지방의 칼링가(Kalinga) 사람들이 양갈로를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인간과 자연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야기하는 어린이 음악극이다.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이번 공연은 필리핀 전래동화 '바닷물은 왜 짠까'와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소금을 내는 맷돌' 이야기를 모티브로 필리핀 전통 악기와 유사한 악기로 극의 음악을 전개했으며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연출해 어린이들의 눈길을 끌었다.

공연중 연극배우들은 거인 양갈로를 깨우기 위해 관객들의 박수를 유도하며 호응을 이끌었고, 콘트라베이스로 양갈로의 웅장한 목소리를 묘사하는 등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연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공연을 마련해 군민들의 문화적 감성을 해소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동채본부

보성전통차농업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성료

청우다원서 차 관련자 대상...이론교육·홍차 시음·평가회도

보성군은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청우다원에서 차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홍차제다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차제다 프로그램은 보성전통차 농업 전문가 육성을 위해 추진되며, 보성군 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차 관련자를 대상으로 차 관련 이론교육, 홍차 시음과 평가회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보성전통차 농업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앞으

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성군은 보성전통차농업시스템이 지난 2018년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되면서 우리차 전통 보전을 위해 고려시대 뇌원차 복원, 녹차·홍차 전문화 교육 등 보성차의 가치를 높이는 독창적인 재배기술과 제다기술 교육을 통해 명품화하고 있다. 보성은 차 생육환경의 최적지로 매년 고품질의 차가 생산되고, 전국 차 생산량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기농 차밭을 가꾸고 찾음을 하나하나 채취하여 차를 만드는 등 농가들의 차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은 녹차와 홍차, 떡차의 주산지로서 전문가 육성 교육을 통하여 차 명품화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품

질의 차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한민국 차(茶) 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광양시 광영동사무소, 무인 민원발급기 연중무휴 운영

광양시 광영동사무소가 8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광영동사무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하던 무인민원발급기를 365일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중 어느 시간대이나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지문인식만으로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게 됐다. 발급 가능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76종으로 민원창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발급 가능하며, 광영동 무인민원발급기는 광영동사무소 민원실 입구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미자 광영동장은 “앞으로도 시민 편의와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기동채본부

여수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간담회

시청 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16명 초청

여수시가 지난 7월28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16명을 초청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수시의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현황 설명, 아동권리 교육, 부채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아동이 단순한 보호대상에서 벗어나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마지막 순서로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담긴

부채를 활용해 참석자들의 의지를 담은 퍼포먼스 행사가 이어졌다. 여수시는 올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6개 부서에서 14개 분야 141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권리지킴이와 아동권리 옴부즈판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정신 환경복지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이 더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친화도시 조성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기동채본부

내 삶이 행복한 광산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